

## 우는 벤처 vs 웃는 벤처

냉혹한 시장논리로 사옥 매각, 폐업... 벤처 옥석 가리는 단계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상반기 200억 매출을 달성해 올 한해 4~600억 매출 기대감에 설레고 있는 반면 시장 진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대덕밸리 기업들은 고향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연에서 한술밥을 먹던 연구원 출신 기업들의 운명이 극단



적으로 갈린 것이다. 이런 대덕밸리 기업들의 엇갈린 운명은 4~5년 여 동안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수백여 개의 정부출연연 출신 벤처기업들의 경영성적표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IT벤처기업의 대표는 최근 사옥을 매각기로 최종 결정하고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창업이래 4년 동안 극심한 불황을 견뎌오면서 끝내 시장을 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9년 창업한 ETRI 출신 B기업 역시 광통신 관련제품 개발로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벌이다가 최근 폐업을 결정하고 비공식적으로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창업한 R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 역시 ETRI 출신으로 기술이전 받은 독자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벌였으나 최근 창업 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축소와 임대 전환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대덕밸리의 대표적인 벤처빌딩인 P빌딩에 입주해 있는 D기업의 경우 100평의 공간 가운데 80평을 다른 기업에 임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창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으로 유명세를 타던 E기업도 최근 사업부진으로 1000여 평의 부지에 공들여 지은 사옥을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들이 폐업과 사업 축소, 임대 전환을 벌이는 이유는 창업 이후 제품을 출시했지만 시장 진입이 어렵고, 막대하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대덕밸리에는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대덕밸리 코스닥기업 중 3개 기업은 상반기 이미 200억원대 '수출 대박' 신화를 터뜨렸으며 올해 100억대 매출을 기대하는 거부(巨富) 벤처기업들도 10여 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대덕밸리에 희비쌍곡선이 교차하는 현상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냉혹한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벌여지는 현상이라고 결론 짓는다.

신제품 신기술

### 하이로보텍, 0.001mm 간격 움직이는 '정밀 로봇' 출시



**대**덕밸리 산업용 로봇제작 전문업체 하이로보텍(대표 윤상중)은 자기부상 방식을 응용한 산업용 직계좌표 로봇인 '리니어 서보(Linear Servo)'를 개발, 출시했다.

'리니어 서보' 로봇은 소규모 산업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이송용 로봇으로 전용 제어기와 평행, 수직이동을 할 수 있는 본체로 구성돼 있다. 로봇팔을 장착해 다양한 용도로 정밀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로봇은 초당 3m를 움직일 수 있어 기존제품에 비해 3배 이상의 작업속도를 보유했다.

특히 이 로봇은 모터 자체를 일직선으로 펴서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 직선운동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별도의 모터와 동력전달용 볼트가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음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0.001mm 수준의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로봇 제작을 위해 회사측은 일본 NSK, 한국 SBC 등 정밀 부품 생산업체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리니어 서보' 로봇 이외에 3종류의 직계좌표 로봇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2001년 창업했으며, 직계좌표 로봇 판매를 통해 올해 15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